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21, 2020 Vol. 718

캘리포니아 교회들, 오순절 기점 '현장 예배 재개' 급물살

목회자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 계획안에 맹비난

갈보리 채플 치노 힐스 잭 힙스(Jack Hibbs) 목사는 불확실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Calvary Chapel Chino Hills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기점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려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 교회와 목회자들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재개 계획안'에 대해 맹비난하며 열띤 논쟁에 불을 붙였다.

13일 크리스천포스트는 오는 5월 31일 현장예배 재개 의사를 밝힌 캘리포니아 교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3천여 교회와 25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교회(Church United)는 현장예배 재개와 관련된 주정부의 3단계 경제활동 결정과 상관없이 5월 31일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캘리포니아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 현장예배 재개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 '2단계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해 꽃집, 서점, 스포츠용품점, 제조업, 창고 등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비필수적인' 3단계 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지로 지목됐던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가 5월 16일부터 1단계에 '교회, 식당, 체육관'을 포함시켜 서서히 경제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샌달 교회 매트 브라운(Matt Brown) 목사는 교회를 '비필수적'이라고 여긴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다.

브라운 목사는 "주지사가 그의 선을 넘어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교회가 미국인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하는 일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보리 채플 치노 힐스 잭 힙스(Jack Hibbs) 목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위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라 교회들은 두 달 넘게 주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었다"며 "하지만 목회자들의 탄원서에 대한 주지사 사무실의 답변은 교회가 경제활동 3, 4단계에 있으며,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힙스 목사는 "불확실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자 애쓰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5월 31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에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현장예배 재개에 대한 염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현장예배를 재개해서 비난을 받고 혹은 재개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면, 설령 사람의 잘 의도된 말이라 할지라도 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서히 안전하고 지혜롭게, 현장 안전수칙을 잘 지켜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교회가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며 누가 진리의 최종적 권위자인지 물었다. 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부에게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자기 스스로 입법자에게 대답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혜 기자

아름다운교회 라마단 기간 이슬람권 선교위해 기도 운동 펼쳐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동안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무슬림들의 특별 기도 기간인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번 째 달을 뜻하며 금식의 달이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라마단 월에 알라의 최초 계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체의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하루 3~5번 기도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라마단 기간은 총 30일간 진행된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 담임)

무슬림들은 라마단 금식을 하면서 종교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무슬림 지역 선교사들은 라마단 월이 되면 참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로 이슬람의 종교성이 드러나고 이교도에 대한 핍박도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라마단으로 인해 무슬림 사회에는 여러가지 폐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기 위해 해가 진후에는 폭식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로인해 소화기관 장애를 겪는 무슬림들이 증가한다.

또한 절제를 통해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에 금단현상으로 오는 초조함과 불만이 작은 시비에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매년 16억의 무슬림들이 특별 기도하는 이 기간, 기독교인들 역시 전세계에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 1992년 중동 지역 그리스도인 지도자 모임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세계 2천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세계적인 기도운동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그 결과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꿈과 환상 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들도 보고되고 있다.

아름다운교회는 매일 새벽시간을 통해 무슬림 나라를 한 곳씩 소개하고, 릴레이 금식을 진행하며 무슬림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고승희 목사는 "이 라마단 기간, 흑암에 고통받는 이슬람권 백성들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그들의 회심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한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Brake Service
▪Tune-Ups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나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움츠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노숙자 텐트촌을 찾고 도시 빈민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다.

희망 나눔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화장지와 마스크를 준비해서 LA지역 거리로 나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다.

이들은 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 (회장 김영구 목사) 운영위원들인 샘신 목사(예수선교교회), 박세헌 목사(예수로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와 미주 한인 재단 회장 이병만 장로, 한기형 목사(하늘문 교회)다.

희망 나눔 후원회는 마스크와 화장지를 들고 홈리스 텐트촌과 맥아더 공원 그리고 코리아 타운 주변 거리를 다니며 노숙자들과 도시 빈민들을 만났다.

또 코리아 타운, 다운타운, Valley 홈리스 텐트촌, 올림픽 공원, 샤토 공원, 전철역 주변, 버스 정류장 그리고 한인 마트들 주차장을 찾아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한인들에게 생필품을 나눴다.

희망 나눔 후원회 활동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각자의 사비를 모아 시작됐다. 나눔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원금을 보내 마음으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희망 나눔 후원회 회원들은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겠다'는 절박함에 시작한 사역이 노숙자들과 도시 빈민들을 만날수록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며 "경비와 물자 등 사역에 후원을 원하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323)578-7933 강태광 목사

희망 나눔 후원회가 화장지와 생필품을 마련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USA, 가정폭력 여성 어린이 쉼터 지원 캠페인 실시

국제 구호 단체 굿네이버스 USA

LA 지역 여성 및 아동 청소년 홈리스 13,000 명 달해
굿네이버스 USA, 2018년 11월 여성아동쉼터 개소
굿네이버스 쉼터에서 피해 여성 및 아동에게 숙식 및 교육의 기회 제공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노숙인이 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쉼터 지원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굿네이버스 USA 는 2018년 11월 여성아동쉼터를 개소하고 연간 150명의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안전한 쉼터에서 보호하고 숙식 지원과 직업교육 및 연결,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등록 및 방과후 교실은 물론 쉼터를 퇴소할 때 렌트비를 지원하여 사회에 온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쉼터의 운영은 LASHA(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와 CALOES(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운영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기관의 기금으로 선 지불한 후에 2-3개월후에 정산 받는 정부 보조 시스템과 30%에 육박하는 자부담율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된 COVID-19 스테이홈 명령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은 폭력 및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주할 집과 식량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LAHSA 의 통계에 따르면 Los Angeles 지역 노숙인 6만명 중에 여성은 약 1만명, 아동청소년은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https://www.lahsa.org/) 이 수치는 COVID-19 사태 이후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굿네이버스 USA 는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기존의 쉼터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쉼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후원 문의 : 877-499-9898
www.kr.goodneighbors.us/shelter

남가주교협 정완기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정완기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 교협) 회장 정완기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교협은 정완기 목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근래 기침과 고열로 힘든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 간호사로 봉사하다 정완기 목사 사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가주 교협은 임원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과 정 목사 부부의 완쾌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월드쉐어 USA, 코로나 시대를 밝힌다!

일상의 삶이 정지된 코로나 시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요즘 자주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을 자주 찾는다. 월드쉐어는 노숙자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코로나 시대에 노숙자 지원활동을 훨씬 더 강화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노숙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노숙자들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월드쉐어 한국 본부에서도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조차 직접적인 현장 활동을 만류했다.

물론 구호 사역자들이라고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그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등 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에게 치킨 스프와 도넛을 나눠주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노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노숙자들의 간절한 눈길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진심 어린 격려들 그리고 간간히 전달되는 후원의 손길에 큰 힘을 얻는다.

강태광 목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숙자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도시 빈민 지원활동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섬기고 나누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그는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최근 마음이 맞는 목회자들과 함께 도시빈민과 노숙자들을 섬기기도 했고, 나누는 삶의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행복칼럼과 문학 칼럼 등을 몇몇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한편, 월드쉐어는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전쟁, 재난,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 중인 국제 구호 NGO이다. 월드쉐어는 활발하고 투명성 있는 구호활동을 인정받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문의 |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 (323 528 7933)

새생명선교회 미주 45개 한인교회 선정, 1천 달러 지원

새생명선교회 대표/KIMNET 이사장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대표 박희민 목사)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개 교회를 선정해 1천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석 성도 50명 이하 교회로 교회 이름 및 연락처, 담임 목사 이름, 주소, 교세, 설립 날짜 등을 적어 새생명선교회(Attend: New Life Mission Founfation 4529 Frederick Ave La Crescenta CA91214)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5월 31일까지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교회에 지급하게 된다.

김동욱 기자

COVID-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미주복음방송 "나눔-On(온) 캠페인" 진행

미주복음방송(AM 1190)은 COVID-19 사태로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와 함께 생필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나눔-On(온)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주 실비치 리저월드 한인회, 소망소사이어티, 양로병원과 노인 아파트에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장애인 3명에게 각 1,50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신학교에서 신학생(유학생)을 추천 받아 생활지원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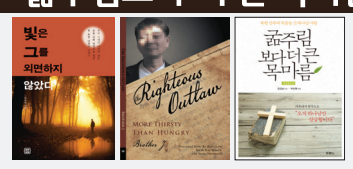
미주복음방송 "나눔-On(온)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한인사회 단체나 개인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nanum-on@kgbc.com 또는 714-484-1190로 할 수 있다.

미주복음방송 기획 대외협력 담당 김병호 목사는 "나눔-On(온) 캠페인은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저 없이 알려주시면 작은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물품 또는 재정으로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후원자 분들도 찾고 있다"며 "나눔-On(온) 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양로병원과 노인 아파트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미주복음방송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에스더대표), 송정명목사(북송반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쥬빌리미주대표), 신창민박사(통일은 대박이다),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열의 책은 이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드온 둠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응자가 될까?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7

"ZOOM 영상으로 드려진 미주 목회자 연합 월드미션"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 선교회에는 북미주에 약 80여 명의 지도목사들이 있다. 각 지역에서 대부분 목회를 하시면서 그 지역 선교회의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한다.

올해에도 3월부터 각 지역별로(48개 지부) "비전스쿨"을 열었고 9주간의 훈련 끝에 5월 중에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모임 규제령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각 지부는 일제히 영상 훈련 체제를 준비하여 전 지부의 비전스쿨이 다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른 어느 해보다도 훈련 참가자가 많았고, 특히 다민족 청년층의 지원이 많았다. 엘에이 지역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목회자 비전스쿨도 함께 시행되어 여러 목회자들이 훈련을 마치고 7월부터 있을 단기선교에 지원을 한 상태이다. 물론 7월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온 열방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결정하였다.

우리 선교회는 졸업을 한 후에 각 지역별로 "월드미션 예배"를 진행하게 된다. 졸업을 마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목회자들도 졸업 후 "월드미션 예배"를 준비하다가 기왕 인터넷 영상예배로 하게 되니 북미주 목회자 연합 월드미션을 하자는 결정을 하였다.

일반 평신도들이나 청년 그리고 EMYG(다민족 청년)들의 "월드미션"은 이미 각 팀별로 연합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목회자들의 월드미션은 연합으로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공고기간이 한주밖에 되지 않아 각 지부 선임간사들과 총무단의 협력으로 이번 주 월요일(18일) 서부 시간 오후 4시, 동부는 오후 7시에 역사적인 "영상 북미 목회자 연합 월드미션 예배"를 드렸다. 20여 지역에서 참가자 97명이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들을 대하며 드려진 예배는 감동이었다. 예배팀 간사의 찬양 인도로 뜨겁게 찬양을 합창했다. 이어서 세계선교부흥을 위해, 온 열방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의 평강을 위해 합심기도로 올려 드렸다.

영상이었으나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선교회 미주 이사장이신 뉴욕 송병기 목사는 한국 방문 중에 참여하여서 환영사를 담당하며 참여한 97명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하였다. 모두의 얼굴들이 환하게 펴지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하였다.

한국 본부에서 국제 사역팀 대표로 계신 강요한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요한복음 16:7-13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라기보다는 선교지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증거 하면서, 요즘 열방의 선교지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를 증거 할 때는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았다.

현장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사역 간증들, 특히 작년 11월 터키 디야르바크르에서 전도 중 순교한 김천국 선교사의 간증과 순교 그 이후의 소식들을 들으며 순교의 피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더욱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으며 함께 하였다. 말씀 후에 또 연합으로 강 선교사께서 이끄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모두 하나가 되어 통성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 결단의 찬양이 이어졌고, 각 지역 목회자들이 인사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은 모두를 더욱 가깝게 결속시키는 듯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잘 극복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더라도 우리 "미주 목회자 연합 월드미션"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Zoom 영상예배로 다 같이 모이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Misio Dei)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온 열방 70개국에서 수백 개의 비전스쿨을 통해 수천 명의 선교 지원자들이 나오면서 더욱 강하게 온 열방을 덮었다. 지난 한 달 라마단 기간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은 공식적으로 나라안에서 이방 종교의 집회를 허락한다는 국가 결정이 전해진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여러 팀의 비전스쿨이 메카는 물론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3) 용서

용서의 의미를 알아 보세요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1985년 5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성경공부를 도와주던 루스 펠케(78) 할머니를 여고생 4명이 찾아갑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할머니는 선뜻 문을 열고 그들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 15세의 소녀 폴라 쿠퍼는 꽃병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쓰러진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외우자 쿠퍼는 준비했던 부엌칼로 할머니의 팔과 다리에 칼질하고, 복부를 33차례 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소녀가 훔친 돈은 10달러였다.

앳된 소녀들의 잔혹한 살인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3명은 25~60년형을, 주범 쿠퍼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인디애나주에선 10세 이상은 사형이 가능해 쿠퍼는 최연소 사형수가 됐습니다. 쿠퍼 구명운동이 일어나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소녀 사형수를 위한 구명운동에 200만 명이 참여합니다.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펠케 할머니를 기억하는 인디애나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성경공부를 인도해 준 할머니를 살해한 범행에 분노가 대단했고, 쿠퍼의 감옥 생활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간수들과 자신의 독방에서 성관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임신 반응 테스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쿠퍼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을 포기한 쿠퍼에게 예상 밖의 구원의 손길이 펠케 할머니의 손자 빌 펠케로부터 왔습니다. 빌도 다른 유족들처럼 분노하면서 범인의 사형을 원했었지만, 쿠퍼의 사형 선고 후에 빌은 악몽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쿠퍼를 용서하고 오히려 품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악몽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빌은 용기를 내어 쿠퍼를 찾아갑니다. 할머니를 위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 쿠퍼를 용서합니다. 결심대로 용서를 실천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빌은 용서가 주는 축복을 누립니다. 용서가 자신에게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빌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매년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교제하면서 상처를 보듬는 자리를 갖습니다.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활동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요? 용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용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용서의 개념 문제입니다. 테네시 주립대학교 캐서린 로울러 교수팀은 용서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팀의 중요한 소득은 '용서의 개념'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캐스린 교수 연구팀이 주장하는 사실은 용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개념에 중요한 합의점이 있긴 하지만 용서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신학에서의 용서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첫째,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면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용서라는 선물은 상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려면 자신에게 있는 상처의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고통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서는 상처의 아픔을 잊어가며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용서가 과정이라는 점에서 용서를 작정한 용서(Decisional forgiveness)와 감정적 용서(Emotional forgiveness)로 구분합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용서를 결심했다면 이미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아도 용서를 작정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원한을 극복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원한과 증오를 이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종종 원한을 품고 삽니다. 그 원한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고통을 당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용서는 원한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복수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넷째, 용서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입니다. 용서는 나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더 이상 가해자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면 나는 절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관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조금은 가볍고 편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용서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깨끗한 정리나 관계 회복 같은 부담을 버리고 용서를 결심하면 용서는 시작됩니다. 용서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용서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캘리포니아 한인교회, 언제 다시 개방할 수 있을까?

주 성 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자유롭게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복되고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옆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드린다는 생각에 억한 감정을 누루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업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Drive-in 예배와 야외 예배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에 떠 오르면서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이기 때문에 각 주 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지사의 성격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급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의 조종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50개 나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주 마다 주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로 어떤 주는 완전 개방한 주가 있는가 하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처럼 아직도 행동규례를 열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규례를 개방한 주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세척등의 규례를 완강하게 통제하면서 개방한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그 행동 규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목요 화상 콘퍼런스를 통해 전해진 소식 가운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Drive-in 예배입니다. 다시말해서 주차장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예배는 미구구 50개 주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개방했습니다. 그것은 차와 차 사이를 건너뛰게 하고 지역에 있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교회들은 이러한 시설에 많이 익숙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 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단파 라디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는 교회에서는 날씨와 비쥬얼의 관례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드라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옛날 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드라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수정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있게 받아들여 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없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발빠른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드리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외예배입니다. 미국의 중 남부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적은 주들은 이미 야외 예배를 허락했고, 사람들은 피크닉 의자를 동원해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잔디 밭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릴 경우 정부의 제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라도 경찰이 동원되어 모인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지금 주정부가 완전 개방한 상황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얼마 동안 지연될지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은 2~3 가정이 개인 집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기 전에 장소에 모든 의자 및 탁자를 세척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모임이 끝나면 모든 의자나 탁자를 세척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내 예배입니다. 5월 말이면 정부 제재가 좀 풀린다고 하지만, 교회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식품점이나, 은행, 식당, 등등 부분에 넣지 않고 극장과 스포츠 행사와 같은 부분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취미 생활 부분에 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교인들은 언제까지 정부가 허락하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한 모든 규칙을 지키며 실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전후좌우 6피트가 아니라 가족단위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친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자취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전후좌우 6피트를 정해 놓는다면 30명이고 40명이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또한 목회자들에게는 좀 피곤한 일이겠지만 주일에 여러차례 예배를 드린다면 실내 예배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서는 교회문을 다시 여는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주 정부에서 교회에게 문을 여는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9월이 훨씬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 협회는 절대로 주정부에 대항해서 모임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개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정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이미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임시 법안이 완화되었지만 각 카운티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Riverside County, San Bernadino County는 교회가 무을 열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L.A. County나 Orange County는 부분적으로는 개방하고 부분적으로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찰서나 아니면 보안관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먼저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때 어떻게 교회를 개방할 수있는가에 대한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셔서 준비하시되 그 내용을 일일히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체크 리스트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크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회 변호사들이 지난 10주 동안 미 50개주의 주 법령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 교회가 기도하시면서 좋은 시기를 결정하셔서 드라이브인 예베, 야외 예배, 온라인 예배, 심지어는 실내 예배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정부가 지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세척, 그리고 마스크 사용은 필수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국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하지 않는가?"란 생각을 절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통해 정부의 규례를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임을 가지는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 협회가 제공하는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나 목회자가 체포 또는 벌금을 물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회를 개방했는지에 기준해서 저희 협회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억압하는 경우에는 실력있는 우리 협회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시행한 내용에 근거해서 끝까지 법정공방을 무상으로 도울 것입니다.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자

문의 : 714-540-7471
이메일 : rju@pji.org

미국의 한 교회가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Paul Daugherty 페이스북

2020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곤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대부분 한국 교회 5월 17일 현장-온라인 예배 병행

인천 두 교회 '확진자 0명'… "지침 준수 시 안전" 공감대도

스승의 주일인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교회들은 성도 간 1-2m의 간격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린다. 이와 함께 환자와 격리 대상자 및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다.

교회들은 최근 이태원 게이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140여명을 넘어 재유행 기로에 놓임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 감염이 우려되던 인천 온사랑교회와 팔복교회에서 '확진자 0명'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속 예배는 안전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5월부터 주일예배뿐 아니라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등 주중 예배와 사역들도 서서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후 결정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청소년 등 교회학교 예배는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다. 서울 휘문고교에서더 예배드리던 판교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11주째 이어가기로 했다.

김양재 목사는 홈페이지 목회서신을 통해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과거를 인정하고 어떤 수치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형제들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12주만인 지난 10일 서현 드림센터 제한적 운영을 시작한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는 17일에도 제한적 운영을 이어간다.

주일 현장 예배는 예배 참석을 신청한 성도들 중 순차적으로 배정이 완료된 이들만 참석할 수 있다. 1-4부 예배는 장년 예배, 5부는 청년 예배이다. 주중 사역들도 제한적·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성도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와 인천 주안장로교회(담임 주승중 목사)는 17일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와 포항중앙교회(담임 손병렬 목사)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한다.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전남 여수 지역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등도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성도 수 56만명의 '세계 최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지난 4월 26일 현장 예배를 재개했으며, 이번 주일에도 1m 거리를 유지한 채 한정적 좌석을 배정해 제한적 주일 현장 예배를 실시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성령대망회와 토요예배 등을 모두 재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참석에도 2차 감염 0명의 기적을 이룬 팔복교회 전경. ⓒ인천=송경호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10일 주일예배를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복원한다. 1-4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며, 주중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된다.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도 16일 토요일 1부 오전 9시 예배와 오후 4시 2부 예배를 드렸으며, 주일에도 1-7부 예배와 '드라이브 인 워십'을 진행한다.

서울 관악구 큰은혜교회(담임 이규호 목사)는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시간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교회학교 돌봄예배'도 2·3부와 저녁 예배에 운영한다.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희망자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분당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사전 신청자들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 중랑구 금란교회(담임 김정민 목사),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와 분당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 안산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목사) 등 감리교회들은 현장 예배도 함께한다.

중앙성결교회(담임 한기채 목사)와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와 신길성결교회(담임 이기용 목사) 등 성결교회도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오프라인 예배를 이미 진행 중이다.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는 16단계 방역 수칙을 마련한 가운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부산 지역도 대부분 현장 예배가 복원됐다. 해운대구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가 4월 26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했으며, 강서구 호산나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북구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 동래구 부전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등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지역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와 범어교회(담임 장영일 목사), 동부교회(담임 김서택 목사)와 동신교회(담임 권성수 목사), 경산중앙교회(담임 김종원 목사) 등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 지역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하늘문교회(담임 홍한석 목사), 도안교회(담임 양형주 목사) 등에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 이대웅 기자

'무지개 채플' 신학생들 "장신대에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박사, 이하 장신대) 내 '무지개 채플' 사건으로 학교 측의 징계를 받았다가 법정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아낸 신학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장동 장신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는 주제로 신학생들은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친다"며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한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교수님들은 더 이상 교수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해 달라"고 밝혔다.

학교 당국을 향해서는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 달라.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해 달라.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해 달라"며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 규정을 없애 달라.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는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이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 달라.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현재 '무지개신학교'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형석 교수 "文정권, 역사적 심판 받을 수도"

김형석 교수.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가 "현 정권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말도 남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정직한 반성을 말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너'와 '상대방' 때문에 잘못됐다는 관례를 남겼다. 청와대가 더욱 그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 '文정부 덕분에, 文정부 때문에'라는 칼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민은 현 정부 '덕분에'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인위적 고용에만 열중했지 경제의 장래를 건설하는 경제 질서에 따르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때문에' 장래가 걱정된다는 평가는 내리지만, 현 정권 '덕분에' 희망이 보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된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박정희 정권 '덕분에' 이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박정희 정권의 정치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 그러나 경제적 업적은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최고 염원이었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을 사랑하는 풍조도 정착시켜 주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이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경제 전문가들과 실무 경영인들에게 과감히 일임해 주기 바란다.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책임자들을 이끌고 그대로 간다면, 후일에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 덕분에'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찜방' 논란에 다시 주목받는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퀴어축제 모습.

월간조선, 10년 전 김정현 씨와의 인터뷰 재게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블랙 수면방'. 특히 '찜방'으로도 불린다는 이곳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의 민낯을 봤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조선은 10일, 10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호에 실렸던 김정현(가명) 씨와의 인터뷰를 다시 게재했다. 당시 김 씨는 조선일보에 "동성애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이란 제목으로 '양심고백' 광고를 실었다고 한다. 그는 이 광고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동성애의 실태'라며 적나라한 내용까지 묘사하고 있다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동성애자로 살아오다 29살 때 동성애 극복을 결심하고, 6년이 지나 이성과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향'(轉向)에 성공했다.

김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은 '식성'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고 했다. 동성애자들에게 식성은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체형과 스타일이라고 한다. 김 씨는 "동성애자에게 있어 식성은 절대적인 요소"라며 "식성은 이성애자들이 보는 외모나 이상형과는 다르다. 식성이 맞아야 성관계가 가능하다. 주로 성관계가 먼저고 연애나 사랑은 그 후의 과정"이라고 했다.

특히 게이바나 번개 모임에서 짝을 못 찾는 동성애자들은 '찜방'으로 간다고 한다.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하는 입장료를 내면 여러 방을 옮겨 다니며 성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사우나'로 불리기도 한단다.

특히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에이즈(HIV/AIDS) 감염 현황 자료를 꺼내 보였다는 그는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91%가 남자다. 그리고 그중 43%가 동성 간 성접촉을 했다"며 "보통 국내 동성애자 비율을 많게 잡아도 2% 남짓으로 본다. 숫자로는 분명 '소수'인 이들이 에이즈 감염으론 절반 가까운 걸 보면 그 역학 관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물론 (남성 동성애자들) 모두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대부분 한다. 동성애자들이 초면에 묻는 것이 식성과 때짜와 마짜 여부(성역할)다. 번개 모임에서 가끔 항문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동성애자들이 나오는데, 거의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감성적 인권론자'들은 정확한 실상을 외면한 채 무조건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증)'로 몰아붙인다. 책 보고 동성애 공부한 사람들이 철학과 역사 들먹이며 토론하는 것 보면 역겹다"고도 했다.

김 씨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누구보다 존중한다"며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는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치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 동성애는 분명 고칠 수 있다. 금연이 어렵다고 금연 치료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료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 법안이 과연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법안일까. 아니면 정치권의 지지세력 확충에 동성애자들이 이용당하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씨의 광고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동성애자들이 반발도 거셌다. 한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들의 20여 년 인권운동 역사가 이 글 하나로 호도되고 먹칠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그분들도 글에 나온 용어나 세태 자체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남녀관계의 성적 욕구와 변태적 윤락 문화를 내세워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직접 게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김 씨가 알려준 게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살펴봤다. 그가 말한 대로 동성애자들이 식성을 공개하며 자신의 짝을 찾고 있었다"며 "'때짜'와 '마짜' 등 성역할과 찜방에 대한 설명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찜방의 성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찜방에서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보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동성애자 '찜방' 게이클럽, 블랙수면방 이어 일부 사우나까지 번져

논현역 사우나, '근육질 젊은 남자만 입장' 일반 사우나에서도 동성애자들끼리 모여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게이클럽과 강남 블랙수면방 등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본지에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동성애자 관련 장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모르는 상대를 만나 관계를 맺는 '찜방'이 서울 시내에도 여러 곳 존재하고 있다.

서울 논현역 인근 '동성애 사우나'로 알려진 OO는 카페 홈페이지에 '남자만 가입 가능'이라고 돼 있으며, 실제로 근육 체형만 입장이 가능하고 뚱뚱한 남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후기들이 있다.

이곳 카페를 보면 40대 이상은 출입이 되지 않고, 22세 이하는 무료 쿠폰을, 25세 이하는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요일별 이벤트로는 '언더웨어(Underwear)', '누드(Nude Only)', '음란한 체대창고(현역 체대생 무료)', '금요 누드' 등 야릇한 소개들이 초기 화면부터 등장하고 있다.

위 사우나 또는 블랙수면방 등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게이 사우나' OO은 서울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다.

'종태원(게이들이 종로와 이태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에 해당하는 종로 관철동에는 헬스장을 사용하면서 '찜방'까지 이용할 수 있는 OOO도 있다.

이 밖에 이태원 지역 클럽들의 경우 사우나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손님이 많지 않은 일반 사우나들 중 일부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암암리에 모여 성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서울대입구와 가산디지털단지, 한성대입구 등지의 일부 사우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사우나는 밤이 되면 일반인들은 없는 대신 '찜방'보다 더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아오고, 다른 사우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성 동성애자들끼리 모여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런 곳을 방문하는 남성들은 대체로 현금 결제를 하기에, 방문자 추적도 쉽지 않다"며 "이태원 게이클럽 확진자 발생에 이어, 또 다른 방역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웅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사우스베이, 토렌스

美 응답자 43% "트럼프 행정부, 복음주의 기독교 돕고 있어"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니 무어 목사 트위터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어떤 그룹보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고 지난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트럼프 행정부가 복음주의자를 돕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44%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11%는 트럼프가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

복음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29%의 응답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대인들을 돕고 있다"고 응답했다. 25%는 "가톨릭을 돕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4%는 무종교인들을 도왔으며 7%는 무슬림들을 도왔다고 대답했다.

이와 반대로 응답자 중 48%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종교보다 무슬림을 다치게 했다고 믿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로 나설 당시, 다수의 무슬림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논쟁적인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퓨리서치 저스틴 노르테(Justin Nortey) 연구원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소속 종교가 무엇이지에 따라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음주의자들을 도왔다고 대답했으며 7%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유대인의 64%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지만 흑인 개신교인(21%)은 이같이 대답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이 보고서는 또한 복음주의자들이 유대인들보다 행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자의 57%는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유대인 응답자의 40%가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 성인 응답자의 29%는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이는 정부가 유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인 26%와 거의 비슷하다. 응답자의 42%는 "큰 차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 대다수가 정부가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대답한 유일한 종교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6천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했다.

이미경 기자

웜비어 부모, 미국 내 北 관련 자금 약 291억 찾아내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왼쪽) 씨와 신디 웜비어 씨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돌아왔지만 6일 만에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가 미국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을 찾아냈다. 이에 이들이 아들 사망에 대한 배상금을 실제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천379만 달러(약 291억6천만 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을 지목했다.

특히 신디 씨의 요청서에는 각 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 있는데, JP모건 체이스 1천757만 달러(약 215억3천만 원), 웰스파고 301만 달러(약 36억9천만 원), 뉴욕멜론 321만 달러(약 39억3천만 원)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 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웜비어 씨 측 변호인은 은행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웜비어 씨 부부는 아들 웜비어 군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2018년 4월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약 6,145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냈다.

김진영 기자

美 교계 지도자들, “코로나 소송서 교회 보호” 국회에 요청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유대인까지 망라해 총 300여명 서명 동참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과 커크 카메론(Kirk Cameron) 등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장 예배로 소송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함 목사와 카메룬 목사는 최근 미 사법부 상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예배를 드리거나 지역의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초래된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종교 단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코로나19 경제 회복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약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법과 행정명령을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보호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가 단순한 과실 소송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가 작성한 이 서한에는 남침례회 알 몰러 신학교 회장, 제임스 돕슨(James Dobson) 목사,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가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 TV 전도사 존 토니(John Tony), 라디오 진행자 에릭 메탁사스(Eric Metaxas), 젊은지구창조론자 켄 함(Ken Ham), 스페인 행동네크 마크 곤잘레스(Mark Conzales) 회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이지만, 유대가치연합회 페삭 레너(Pesach Lerner)를 포함한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도 눈에 띈다.

서한은 “우리는 미국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위협을 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교회로부터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은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과 관련해, 교회나 사역을 비난하는 소송들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법적인 방어 비용으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강혜진 기자

美 연방법원 “예배 제한 행정명령, 종교 자유 침해”

노스캐롤라이나 로이 쿠퍼 주지사에 ‘자택대기 행정명령 금지’ 소송을 제기한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배 등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일 처치헤드라인뉴스닷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교회들이 로이 쿠퍼(Roy Cooer)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Berean Baptist Church)와 그린빌의 시민침례교회(People’s Baptist Church)는 기독교 단체 리턴 아메리카(Return America)와 함께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쿠퍼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대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16일 제임스 C. 데버(James C. Dever III) 판사는 “미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쿠퍼 주지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데버 판사는 “기업과 사업 활동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한 단체에 적용되고 다른 단체들은 예외로 하는 제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의 유익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데버 판사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기타 공중 보건과 관련된 지침을 실천하겠다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주지사는 시민들이 실내에서 하는 비종교적 활동(쇼핑, 일, 상품 판매)은 신뢰했지만, 그들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상식으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실내에서 일을 하든 쇼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동기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운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청년부 : 오후 2:00
2부 예배 :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CA92886
T.(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PM 4:30- 6:30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3월16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율법의 행위와 믿음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로마서 3: 21

로마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11장은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후반부 12~15장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린 로마서 3장 21절 "이네는 율법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과연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우리가 이해 하기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의인이요 구원에 합당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을 잘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바른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이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두가지 즉 행위율법과 제사율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행위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행동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이를 어기거나 미달이 될 때 그 잘못과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기 위한 제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율법에 핵심은 바로 용서와 화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말에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행위율법만을 지켜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행위율법을 다 지킬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 3: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상태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행위로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 공로와 행위로 의롭게 칭함을 받을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WCC 같은 잘못된 교리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로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 혹은 행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한일을 하는 행위가 있다 해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되어 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임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요즘 많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세기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와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많이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엘에이 공항 대기실에서 배우 안성기씨와 박중훈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중훈씨에게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박중훈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고난"(Passion of Christ)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흐느끼는 것을 감추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감정적 손실이 심해서 그 영화를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울지 말라'고, '울면 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동양적 가르침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미숙함이라고 배웠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하거나 나이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눈물은 귀한 것이며, 그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 56:8).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참회의 눈물, 회개와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처남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통곡하고 헤어집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후, 회개하며 침상이 뜨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응답하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는 심각하게 주어졌지만, 다윗을 죽이거나 왕직을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왕하 20:5)고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반응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는 눈이 짓무르고 상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회개와 간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즐겁게 만드실 것입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사회계몽운동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사회계몽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과 생활의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20~3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교사 주도가 아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애국, 애족의 충정에서 이루어진 면이 더 강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라는 것을 표방하고 한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만정책에 불과한 것이었고, 내막적으로 한민족 말살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갔다. 그 중 일부는 강압적이 아니고 민족 내부로부터 썩어들어 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을 퇴폐적인 문화에 젖게 하기 위하여 술, 담배, 아편, 공창(公娼) 등이 만연하게 하는 방법을 강화해 나갔다. 이것은 일제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한국을 침탈하는 방법과 축을 같이하여 정신적, 문화적으로 한국을 황폐화시키는 고도의 파괴 작전이었다.

유명한 부흥사 길선주 목사가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담배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설교를 했는데, 일제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언동을 한다며 그를 구금한 일도 있었다. 이를 봐서도 일제가 한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흡연을 고취했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집단은 역시 교회였다. 정치적, 경제적인 황폐는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만, 정신적 황폐는 일단 병들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여 민족정신과 민족의 얼을 잃게 되는 무서운 질병임을 자각하였다. 이런 정신적 황폐화에 대해 염려하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1923년 5월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The 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 WWCTU)에서 파송한 틴링(Miss C.L.Tinling)의 내한을 계기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틴링은 한국에 6개월간 머물면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절제운동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와 아울러 한국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여자절제회가 창설되었다. 1922년부터 전국 각지, 정주, 순천, 이리, 철원, 춘천, 은율, 양주 등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 단연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해에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박인덕, 총무에 정마리아가 선출되어 전국을 다니며 300회 이상의 금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화학당의 교사로 있던 손정규(孫貞圭:일명 孫메례)는 절제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23년 9월 감리교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홍에스더, 총무에 정마리아가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4년 8월 이화학당에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때 회장에는 YWCA 총무였던 유각경(俞珏卿)이, 총무에 손정규가 선출되었다. 손정규는 이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지방에 지회를 조직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1928년에는 52개 지회와 3천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였다. 1930년에는 「절제」라는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금주, 단연운동 등을 선도해 나갔다.

절제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은 금주운동이었다. 물론 교회가 금주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1893년 8월에 모인 감리교 선교사 연회에서 처음으로 금주주의(禁酒主義)가 발표되었고, 1903년 연회록에는 절제와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으로 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교인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종류의 술이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 선교사가 약으로서 처방해 준 병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인은 술의 제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3. 교인은 술의 제조, 판매 혹은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단념하도록 권고한다.

장로회 총회에서도 교인 중 누룩 장사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당회가 권면하고 그 형편에 따라 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교인들에게 금주를 강력히 권고하였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남아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 내의 금주운동이 일반의 계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금주운동을 활발히 확산 시키자는 계몽의 글이 남아 있다.

"…술은 탄환 업는 대포와 갓흔데 도로혀 용기를 준다고 밋게 하엿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 비밀을 알엇다. 그러니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야 조선을 살니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니고 영을 살니는 운동이며 죽어 가는 조선을 살니는 운동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금주운동은 단순히 교회 내적 운동의 차원을 넘어 국가를 살리는 운동이라는 애국적 차원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사회가 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 사실을 백범(白凡) 김 구(金九) 선생은 그의 「백범일지」에 그 단면을 보여준다. 김 구의 어머니가 그의 남편과 가족들의 술주정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여 어린 김 구에게 "너의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 때문이니 두고 보아서 네가 또 술을 먹는다면 나는 자살을 하여서 네 꼴을 안 보겠다."고 한 말에서 한국 사회 술의 폐해를 뚜렷이 엿볼 수 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 가 락
✓발 가 락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50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3) 진젠돌프와 모라비안교도들의 부흥

모라비안교도들!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었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의 지상과제로 받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선교지로 나갔다. 하나의 교회 같은 그들 형제단의 희생적 선교활동은 잠자던 개신교 성도들의 가슴을 흔들어 근대선교의 횃불을 타오르게 했다.

그들에 의해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온 영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고 윌리엄 캐리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게 했다. 그들은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 보다 60년 전에 개신교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선교의 모델을 제시했던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였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란?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1372-1415)'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들로 박해를 피해 여러 나라로 흩어졌으나 일부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남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 독일 귀족 진젠돌프가 그들을 자신이 구입한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자 베델스돌프로 모여와 진젠돌프의 지도하에 공동체를 이룬 무리들로서 모라비아에서 왔다고 모라비안 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 불렀다.

얀 후스는 카톨릭 시대에 순교한 종교개혁자다.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현재의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할 대상이다. 모든 성도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에만 인정된다."고 선포하다가 화형 당했던 순교자다.

진젠돌프(1700-1760)

독일 귀족 출신으로 할레대학에 입학해서 할레를 유럽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요람으로 만들었던 프랑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할레대학 시절 진젠돌프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고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위해 '겨자씨 모임'을 만들어 성경읽기운동을 일으키고 외국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후에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루터가 강의 했고 종교개혁의 요람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 유럽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 성당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 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특별한 그림과 그 아래 쓰여진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라는 글을 읽고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목사가 되었다.

1722년 그의 나이 22세 때 베델스돌프에 넓은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떠돌아다니던 모라비안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신의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곳을 주님의 보호(Lord's Watch)라는 뜻을 가진 헤른후트(Herrnhut) 라고 불렀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형제단 회원이었지만 다른 교파 출신들도 있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다. 진젠돌프는 그들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되고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주장을 접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이끌었다.

모라비안 교회에 임하신 오순절

1722년 공동체가 시작되어 당시 모라비안 교회는 200 여명이 그곳에 정착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루에 3회씩 소그룹으로 모였다. 1727년 7월 16일, 7월 22일, 8월 5일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점점 더 강하게 임하심으로 점점 뜨겁게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8월 10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에 압도되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물로 간구했다.

8월 13일에는 온 회중이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 회중에게 임함으로 온 성도들이 이전에 없었던 큰 눈물의 회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두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임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감격을 나누었고 진젠돌프는 그 날을 "헤른후트의 오순절"이라고 불렀다.

이 부흥은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임하여 8월 18일에는 어린이들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길이 충만하게 일어났다.

헤른후트의 부흥의 결과

1, 8월13일 부터 26일까지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이 하루 한 시간씩 24사간 연쇄기도에 헌신한다. 얼마 후에 77명이 연쇄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헌에 의하면 세계선교를 위한 연쇄기도가 100년간 계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했고, 말씀 사모운동이 일어났으며, 예배를 사모하여 하루에 3회씩 예배를 드렸고, 교회는 새로운 찬양의 물결과 은혜가 넘쳐 나게 되었다.

2, 헤른후트의 오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들은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1732년 부터 1760년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는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신교가 파송했던 수 보다 많은 수였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1930년까지 3000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개신교 근대선교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교우 12명 중의 1명의 비율로 복음 들고 선교지로 나갔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선교지망자가 너무 많아 제비를 뽑아서 나가기도 했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여러 면에서 선교의 모범을 보였는데 대부분이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였고,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면서 삶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다.

3, 모라비안들은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조지아주로 부터 초청을 받아 선교사로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를 탔을 때 배가 금방 파선될 것 같은 심한 폭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화롭게 찬송하는 무리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바로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모라비안들이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모라비안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뜨거움을 체험한 후에 변화를 받고 영국을 뒤흔드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

4, 그들의 선교소식에 근대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크게 도전 받았다. 윌리엄 케리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선교잡지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기사들을 접하고 감동과 도전을 크게 받고 "보라, 모라비안교도들이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들을 따를 수 없다. 그들은 주님께 복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다." 고 침례교도들에게 도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순종하기 위해 100여 년간 24시간 연쇄기도를 이어감으로 잠자던 개신교 선교에 불을 지피고 모범을 제시했던 모라비안 형제단 같은 교회와 선교회가 말세를 당한 오늘날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통증탈출 양자침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파동에너지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귀신의 역사와 예수님의 권능

누가복음 8:26-3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누가복음 8:26-39

26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중략)…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호수라고하면 반대편으로 가기위해 쉬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40리고,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80리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였기 때문에 그 호수를 일컬어 갈릴리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체험하면서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비유하자면 면소재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 거라사 족속들, 즉 혈통으로 거라사 핏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 가셨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도 않고, 무덤가에 삽니다. 한국에서는 뫼귀라고 해서 무덤에 사는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가본대로 지형적인 상황이 석회석으로 된 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여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곳에 은거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들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하면 계속해서 그 귀신들린 사람이 말하길 "당신께 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절대자로 알아보고 자기는 납작 엎드려서 당신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즉, 자기는 예수님의 권한 아래,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2. 귀신의 발생과 결국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고유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수종들며 호위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통솔하시기 위해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며 수종들다 보니까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자기에게 과분한 자리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실히 유지해 가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패거리를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루시퍼와 한패거리로 부화뇌동했던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는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18절에 보면, 70명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제자들에 의해 그 귀신들이 쫓겨났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루시퍼가 자기와 작당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시도했던 그 천사들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이 땅으로 쫓겨났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그가 가로되 "군대라"했습니다. 헬라어로 군대는 '레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제국의 부대 단위로 병사 6천명의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아주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는데, 귀신이 왜 이런 간구를 했습니까? 귀신은 이미 자신들의 결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부터 먼저 잡아서 무저갱에 쳐 넣고, 무저갱을 잠그고, 인봉까지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기록되어있습니다. 사탄은 훗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문을 닫고, 또 잠그고 인봉까지 합니다.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열게 도장 찍은 것을 갔다가 붙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국입니다. 이 사탄도 자기가 머지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무저갱에 들어가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3. 귀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식

그런데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비탈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허하신대"(32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갑니다. 멀쩡하게 살던 돼지 떼가 귀신에게 조종을 받아 갑자기 산비탈을 향하여 그냥 경주하듯이 줄달음을 쳐서 갈릴리바다에 빠져 전부다 죽었습니다. 그 돼지 떼가 엄청난 숫자인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돼지의 숫자가 거의 2천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당 30만원씩 계산해 보면 6억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6억이나 되는 재정적 손실은 왜 생각지 않으셨을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는 돼지 2천 마리의 값인 6억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돼지 2천 마리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품삯을 받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 떼의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은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 계시 곳으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쇠고랑으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미치광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히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돼지 떼 주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늘 소망을 가꾸어가는 기쁨에 참예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 때문에, 더 재산 피해 볼까봐서 예수님을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영이 구원 얻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돈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피해보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말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도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가고자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 가서, 네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너를 어떻게 멀쩡히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돼지 떼가 몰사했는지 일일이 다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도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TOPMEDIAUSA Custom Ma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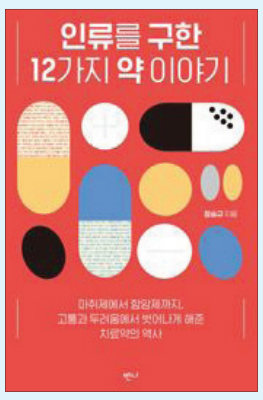
GOOD FRIENDS FOR CHURCH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백신과 치료약**

코로나19로 삶의 위기 상황,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정승규
반니 | 292쪽

절망의 순간마다
인류의 손에
쥐어졌던
치료약
그 내면에 담긴
흥미롭고 경이로운
이야기들!

모든 약은
처음 나온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끊임없이 발전하고,
다시 개발되어
더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약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약을 만들었다.
아주 우연히
발견한 약도 있고,
정밀한 조사와
과학적 접근으로
만든 약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 훈련 장소, 척박한 광야
사람 찾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척박함 보면 위기, 말씀 바라보면 기회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다. 다른 것을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할 때 광야를 사용하셨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다. 강렬한 태양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광야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히브리어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표현한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한다. 이 단어들은 광야의 '미드바르'와 어근이 모두 같다.

광야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척박함을 바라보면 '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기회'가 된다. 모세와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되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코빈 윌리암스는 2차 대전 중인 1945년 3월 15일 프랑스에서 전차 뒤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전차가 지뢰에 걸려 폭발하는 바람에 실명했다.

하지만 그런 장애가 카운슬러이자 목회자가 되려는 그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내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봤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았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분명 위기 사태다.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질병 속 위기를 기회로, 12가지 이야기
항생제, 병원균에만 작용한 획기적인 약
말라리아, 19세기에야 '모기' 원인 밝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책은 역사를 바꾼 12가지 약을 이야기한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항생제

병원균은 인류에게 큰 재앙을 일으켰다. 1346년에서 1353년 사이 유럽을 휩쓴 페스트로 대략 2,500만 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세균의 일종인 페스트균이 원인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페스트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였다. 신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큰 후유증이 남는다. 당시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체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항생제가 나오면서 병원균 퇴치로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생제는 몸 안의 병원균에만 작용하는 획기적인 약이다.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쁘다는 뜻을 가진 'Mal'과 공기를 의미하는 'Aria'가 결합한 단어로, 나쁜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생각해서 지어졌다.

오래 전부터 말라리아는 늪에서 발생한 공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말라리아의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모기라는 사실은 19세기 말에야 밝혀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파병된 미군 6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기도 했다.

마취제, 성경으로 공격 성경으로 대응
근이완제, 독이 되거나 독이 약 되거나
비타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

마취제

마취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자 종교계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임신부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출산의 고통을 줄였다는 이유다.

심프슨은 창세기 2장 21절로 대응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는 구절이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떼어내는 최초의 외과수술을 할 때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자게 했다는 말로써 마취제 사용의 정당성을 펼쳤다.

근이완제

근육이 긴장해 뭉친 곳을 풀어주는 약이 근이완제다. 근이완제 중에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육을 강제 이완시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약물이 그렇다.

이런 독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피부 미용으로 사용하는 보톡스는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보톡스에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다. 중독되면 호흡근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소량의 보툴리눔톡신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주름을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독이 약이 된 경우다.

비타민

비타민이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기물로 육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필수 성분이다.

각기병은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19세기 후반 일본군에서 각기병이 크게 유행했다. 일본인은 반찬은 적게 먹고 밥만 먹는 습관이 있었다. 쌀밥만 먹어서는 각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본군은 영국 해군이 먹는 카레 수프를 주목했다. 카레는 인도인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18세기 영국 해군에서 선상 식량으로 개량했다.

카레를 쌀밥에 얹어 먹으면 편리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엎지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게다가 반찬을 추가로 먹지 않아도 각기병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카레라이스가 보급된 계기다.

모두 위기 말할 때, 기회 봤던 사람들
불가능할 것 같던 질병도 결국 정복
다른 것 보는 인생, 하나님 사용하셔

저자는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를 통해 인류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준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역사는 그들의 손에 의해 변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질병도 정복 가능했다. 코로나19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믿음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다. 모세와 다윗이 광야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길 바란다. 다른 것을 보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VKMASK.com VirusKillerMask.com MADE IN USA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판 매 처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